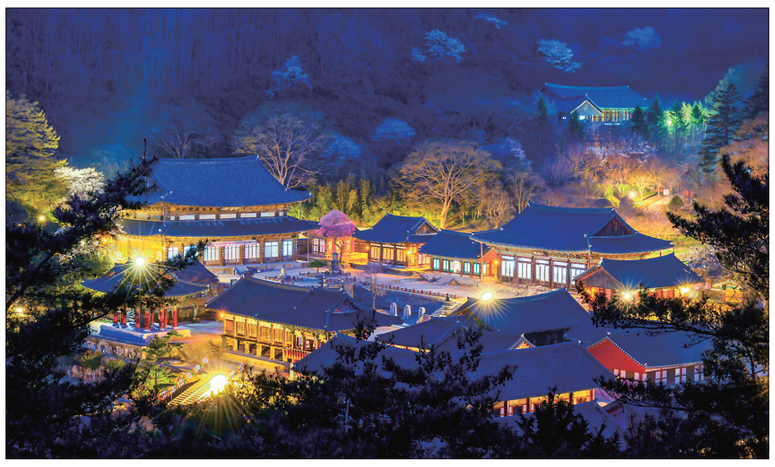
올해도 찾아온 화엄사 야간 개방 '화야몽'

7월 1일~8월 30일 네 차례
'꽃스님' 범정 스님 등 진행
명상하며 지리산 夏夜 만끽
별빛 감상, 역사투어 '다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여름철 야간 개장을 하는 지리산 화엄사. 사진제공=화엄사

지리산에 위치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가 올해 여름, 야간 경내 개방과 더불어 청년 스님들과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 '화야몽(華夜夢)'을 운영한다. 야간개방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며, 화야몽은 7월 19일과 26일, 8월 16일과 23일 총 네 차례 열린다.

화엄사는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야간 개방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한 산사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올해 화야몽은 '찰나, 75분의 1초와 1.5℃'라는 주제와 '화엄! 어디로 그리고 언제'라는 부제를 더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화엄사 홍보국장 범정 스님(해군 대위 전역)은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청년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명상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2023년 8월부터 구례군과의 협의를 통해 자정까지 산문을 개방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구례에 머무는 관광객의 야간 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엄사 나종주 홍보과장은 "저녁 9시 이후 구례에는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야간 개방 이후 화엄사는 자연스럽게 저녁 투어 명소로 자리 잡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화엄사의 야간 개방은 지리산의 고요함과 별빛 아래에서 이뤄지는 특별한 치유의 시간이다. 1507m 노고단에서 불어오는 바람, 별빛과 은하수 아래 누워 명상하는 시간, 고요한 풍경 소리에 귀 기울이는 체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화야몽'은 매 회차 10명 한정 선착순으로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1차 청년 스님들과의 대화, 진짜 나를 찾아라(7월 19일) △2차 자연의 소리와 차 한잔의 여유(7월 26일) △3차 차 한잔과 함께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8월 16일) △4차 명상의 순간, 삶의 속도를 늦추는 시간(8월 23일)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지리산 별빛 감상 △묵언 힐링 △차담과 소원 쓰기 △화엄사 역사 야간 투어 △가족 소원 축원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돼 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 야간 개방과 화야몽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천년의 문화유산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자타불이 마음으로 자비 실천하겠습니다"

지역 불교人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

산림조합중앙회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을 마친 후 삶의 후반기를 봉사와 자비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재현 (사)붓다 봉사단장〈사진〉을 만나 자비의 실천과 불교적 봉사의 본질에 대해 들어봤다.

"봉사는 또 다른 수행"

이 단장은 마이산 탑사의 창건주인 이갑룡 처사의 후손으로, 불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했다. 2019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자연스럽게 (사)붓다 봉사단의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현재는 10개 봉사단을 총괄하는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붓다 봉사단은 원래 갑룡장학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해, 국내외에서 사회봉사를 실천하고자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금은 노인복지, 무료급식, 청소년 활동, 해외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자비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보살행이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자의 봉사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장은 봉사를 수행의 연장으로 여기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일상 속 보살행'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크고 거창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모두 수행이 된다는 것이다.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인연



(사)붓다 센터에서 진행 중인 무료 국수 나눔 행사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 길을 마다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딸, 손수 농사지은 오이와 상추를 매번 챙겨오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은, 그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었다.

"이 작은 인연들이 모여 큰 울림이 됩니다. 봉사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 역시 그에게 또 하나의 수행이다. 그는 2022년 베트남 닥락성의 '담아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자비의 참된 의미를 배웠습니다."

"자비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붓다 봉사단은 불교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다른 종교,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잔치, 장학금 기탁, 홍삼 고추장 담그기 행사 등은 세대 간 연대를 이룬 뜻깊은 활동으로 남아 있다.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자비 정신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자비를 '도움'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자비는 끝없고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봉사이며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국선봉사, 예비역 불자 초청법회

창건 50주년 맞아 봉행
자광 대종사 특별법문도



호국불교의 요람인 용인 호국선봉사(주지 정행 스님)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법회는 호국선봉사 주지를 역임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의 특별법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사진〉 법회에는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지상작전사령관, 예비역 장성 불자, 불교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은 "내가 선봉사 주지로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법당도 없이 창고 비슷한 곳에서 생활해야 했다"며 "선봉사가 이처럼 훌륭한 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백중을 앞두고 기도를 올릴 때 가족뿐 아니라 호국영령들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함께 올리자"고 당부했다.

선봉사 주지 정행 스님(이익수 법사)은 인사말에서 "김윤후 승장의 얼이 서린 호국불교의 성지 용인에 선봉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창건 50주년이라는 시점에 주지 소임을 맡아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는 예비역 불자들을 초청해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호국불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됐다. 예비역 기행병과 1기 출신 백운술 불자는 "매주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형편인데도 예비역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깊이 감동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해인사, 산불 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7월1일 화재진압 가상훈련
팔만대장경 대피 훈련 진행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7월 1일 경내 일원에서 '2025 하안거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훈련은 사찰과 사찰림,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훈련은 주지 혜일 스님이 비상방재단장으로 직접 지휘에 나서 해인사 대중 스님과 종무원, 합천소방서, 가야면사무소,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의용소방대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수미정상탑 인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고부터 초동 진화, 대피 유도, 현장 통제, 잔불 정리에 이르기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특히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에서는 경판 긴급 대피 훈련이 병행돼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해인사는 경내에 38개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했으며 자체 소방 조직과 장비도 갖추고 있다. 대중 스님과 종무원들은 평소 주기적인 방재 교육으로 화재 초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혜일 스님은 훈련을 마친 뒤 "훈련을 반복해야만 실제 화재 상황에서 혼선 없이 대응할 수 있다"며 "지금 같은 초기 대응 역량이 있어야 3시간이 소요될 화재 진압을 3분 안에 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합천소방서장은 "해인사와 소방서가 더욱 협력해 가야산과 천년고찰 해인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법흥 대종사 원적

7월 1일 경내 화엄전서 입적
7월 5일 영결 · 다비식 엄수



조계총림 송광사 동당 도연당(度然堂) 법흥(法興) 대종사〈사진〉가 7월 1일 오전 6시 송광사 화엄전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95세.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한 법흥 스님은 1958년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동화사에서 사미계, 1961년 해인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0년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하안거를 성만한 이래 통도사 극락선원, 표충사 내원암, 망월사, 송광사 국제선원, 상원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송광사 주지와 조계종 제4·7·8대 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2007년 원로의원을 지냈다. 2008년에는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법흥 스님의 영결식은 7월 5일 오전 10시 송광사에서 조계총림장으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상보〉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 직무연수

'괜찮지 않아도 돼' 주제
8월 4~6일, 11일 진행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오는 8월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8월 4~6일과 11일에 열린다.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스스로 치유하고, 학생들과 보다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연수 프로그램은 △고정관념 내려놓기 △괜찮지 않아도 돼 △아름다운 고백(생사 성찰 프로그램) △촛불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들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동기와 마음의 힘을 회복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은 네이버폼 QR코드나 전화로 가능하다. 참가비 5만원. 055-643-0643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35사단 장병 수계법회

6월 28일 호국 충경사서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6월 28일 육군 제35보병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에서 장병 200여 명과 가족이 동참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법회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이 전계아사리, 운천 스님이 갈마아사리, 진성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나서 장병들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설했다.

경우 스님은 "수계는 부처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라며 "오늘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 마음을 늘 바르게 하고, 동료 장병들과도 함께 선업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국비구니회 충남지회, 軍수계법회

논산 호국연무사서…2200명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충남지회(회장 수근 스님)가 6월 2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22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정운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령 세원사 주지)이 수계법사로 법단에 올랐으며, 충남지회 소속 비구니 스님 40여 명 등이 동참했다.

정운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불교에서 계(戒)는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며, 해탈로 가는 문"이라며 "앞으로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맘 불자회' 봉선사서 템플스테이

국가대표 불자선수단 구성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과 현역 유망주로 구성된 '한맘 불자회'가 6월 28~29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한맘 불자회'는 봉선사 주지이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인 호산 스님이 20여 년간 주최한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불자 선수 모임이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마음 테라피' 명상 체험과 사찰음식 '연잎밥 만들기' 체험, 감성 숲 체험 등을 통해 신체 훈련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평안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김내영 기자